

독도(竹島) 뉴스, 48호

2025.1.30

일본 竹島=독도문제 연구넷

<http://www.kr-jp.net>

기사 목록

1. 【논문】 박병섭, 「독도에 대한 현상유지원칙(Uti Possidetis)의 적용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유효성」
2. 【논문】 永田伸吾, 「시마네현에서 영토·주권 교육의 현상에 관한 담당자로서의 청취 조사」
3. 【박사학위 논문】 山下達也, 『어떻게 외교문제는 현재화(顕在化)하는가—竹島 문제에서 이익단체와 운동단체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4. 【강연】 柳原正治, 「센카쿠 제도와 竹島[독도]는 어떻게 일본 영역으로 간주되었는가」
5. 【동영상】 趙吉夫·漆崎英之 외 「최신 연구에 따른 竹島=독도 문제」 제1장의 공개

기사 내용

1. 【논문】 박병섭, 「독도에 대한 현상유지원칙(Uti Possidetis)의 적용과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유효성」, 『영토 해양 연구』 28호, 2024년 12월
<http://www.kr-jp.net/ronbun/park/park-2412k-uti.pdf>

원래 전쟁 종결을 선언하는 평화조약은 영토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독도나 하보마이 등을 명기하지 못했다. 독도의 경위를 말하면, 동 조약 조인식 2개월 전 미국은 조약 초안에 리앙쿠르암(독도)이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독도를 조약에 규정하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한국 정부와의 협의가 계속하는 가운데 조약 조인식이 거행되었고, 조약의 수정은 불가능했다. 결국 한·미 협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미국은 독도의 귀속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보았는지,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되었다.

이처럼 독도는 조약에 규정하지 못했으므로 독도의 귀속은 두 가지 현상유지원칙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하나는 ‘사실상 현상유지원칙’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조약법협약에 비추어 무효가 아니므로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조약 체결 당시 한국만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독도는 한국 영토가 된다.

그러나 이 원칙보다 또 하나의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이 우선하므로 후자의 검토가 더 중요하다.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은 세계 어디에서나 통치 세력이 철수하고 국가가 독립할 때 적용되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이며, 한·일 양국의 독립 당시에도 적용된다. 다만 독도나 제주도 등 일본 주변 소도의 귀속은 포츠담선언 제8항에 따라 연합국이 결정한다고 하므로, 한국이 독립한 1948년에는 이들 섬에 대해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이 적용은 대일평화조약이 발효되고 일본이 독립을 회복할 때까지 유보된다. 그때 한·일 간 소도의 귀속이 결정된다.

한편,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제주도·울릉도 등을 명기했으나 독도를 규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독도는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그때 중요한 판단 자료는 연합국 최고 사령관(SCAP)의 법적 문서인 SCAPIN-677/1 및 관련 지도 「SCAP 관할구역도」 등이다. 이러한 법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독도는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에 따라 한국에 귀속된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법률상도 사실상도 현상유지원칙에 따라 한국의 독도 영유권이 인정된다.

【코멘트】 한국 정부의 영유권 주장에서 가장 큰 약점은 SF조약에 대한 해석이었다. 본 논문의 취지가 옳다면 그 약점이 극복된다.

2. 【논문】 永田伸吾, 「시마네현에서 영토·주권 교육 현상에 관한 담당자로의 청취 조사」, 『北陸大学紀要』 56호, 2024년 3월

<https://www.hokuriku-u.ac.jp/library/libraryDATA/kiyo56/gakugai02.pdf>

시마네현은 영토·주권 교육에서 선도적 역할을 했다. 2017년 3월 「소학교 학습지도 요령」과 「중학교 학습지도 요령」이, 2018년 3월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이 각각 개정되었을 때, 竹島를 포함해 영토 문제에 대한 지도 [요령]이 충족되었는데 이 배경에 시마네현의 일본 정부에 대한 끈질긴 활동이 있었다. 국제사회의 기반이 되는 주권국가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초등·중등교육 단계에서 영토·주권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배우는 의의는 크다. 반면, 영토·주권 교육은 방법을 잘못하면 쉽게 배타적 내셔널리즘에 연결된다.

본 연구는 배타적 내셔널리즘과의 결합을 회피하는 영토·주권 교육의 본래 모습에 대한 지견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시마네현의 '竹島에 관한 학습'의 현상에 대해 현 담당자·관계자에게 청취 조사 및 현지에서 자료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에서 시마네현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별지원학교에서 실시하는 '竹島에 관한 학습'은 혐한 감정의 양성에 연결되지 않도록 배려되고,

현장에서 교원이나 학생 중에도 그러한 의식에 근거해 지도·학습에 임하고 있는 사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코멘트] 저자는 竹島[독도]문제란 한일 양국의 역사 인식과 내셔널리즘 상극이 만들어내는 복잡하고 섬세한 외교문제라고 이해하는 한편, 이것이 한일 간 영유권 논쟁이라는 기본에는 언급이 없다. 또한 '일본 영토인 竹島[독도]에 관한 이해를 깊게 한다'라는 문부과학성의 방침은 검증하려 하지 않다. 이제 '竹島문제연구회' 下條正男 좌장조차 “다케시마[독도]는 20세기 초까지 ‘무주의 땅’, 즉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해 일본 정부의 기본 견해에 이견을 주장할 정도다. 저자도 조사의 전제로서 근본적인 논점에는 한마디라도 견해를 밝혀야 한다.

3. 【박사학위 논문】 山下達也, 『어떻게 외교문제는 현재화(顕在化) 하는가—竹島 문제에서 이익단체와 운동단체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神戸대학, 2024

<https://da.lib.kobe-u.ac.jp/da/kernel/0100482418/D1008670y.pdf>

외교문제·국제분쟁은 왜 어떻게 일어날까? 본 연구의 목적은 역사 인식 혹은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외교문제·국제분쟁이 국내 정치 과정에서 이슈화되고, 대외정책으로서 실행단계에 이행되는 과정에서 이데올로기, 이익, 정책에 관련된 단체가 어떻게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특히 이익단체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그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왜 국내 정치 과정에서 외교문제·국제분쟁이 갑자기 현재화되고, 그리고 진정되는지를 고찰한다.

영토 문제가 '현재'의 문제로 본격적인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셔널리즘의 고양에 따라 문제가 격화되었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내셔널리즘 요인만으로는 왜 특정 시기에 특정의 영토 문제가 의제화하는지, 반대로 갑작스럽게 진정화하는지를 반드시 설명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일본의 영토 문제, 특히 竹島[독도]문제를 사례로 하고, 시기를 구분해 두 가지 경우를 분석한다. ①2005년 시마네현에서의 「竹島の 날」 조례가 제정되기까지의 정치 과정, ②2012년에 제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하고, 竹島 문제(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상륙 사건 등)가 진정되기까지 정치 과정을 분석한다.

2005년 「竹島の 날」 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던 것은 고이즈미(小泉)개혁이 어업 관계자와 자민당의 정치적 제휴를 약체화시켜 竹島 문제를 의제화시키기 쉬운 정치 구조를 만들고, 그 위에 정치 구조의 변화를 인식하는 trigger

event (시마네현민대회, 독도우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코멘트】 시마네현 '竹島의 날' 제정의 요인은 고이즈미 개혁 등이 원인(遠因)인 한편, 1998년 한일 양국이 새 어업협정에서 합의한 竹島=독도 주변 잠정 수역을 통제하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의 실적에 시마네현 이익단체·운동단체가 실망한 것이 근인(近因)이었다는 견해에는 설득력이 있다.

4. **【강연】** 柳原正治 「센카쿠 제도와 竹島[독도]는 어떻게 일본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는가」

영토·주권전시관 지방 순회전 in 후쿠오카에서(2024.3.9)

<https://www.youtube.com/watch?v=7EmoojoL-U4>

일본이 낙도를 편입한 유형은 두 종류 있다.

- A. 무주지 선점(久米赤島、久場島、魚釣島、南鳥島、沖ノ大東島、中ノ鳥島 [非存在]、新南[南沙]郡島)
- B. 일본령 확인(硫黄島、鳥島、沖ノ鳥島)
- B? 小笠原諸島、南·北大東島, 竹島[독도]

竹島[독도]의 경우는 일본 정부는 “B 일본령의 재확인”이라고 하지만, 메이지 정부는 미나미토리지마의 편입을 참고로 해 무주지 선점이라는 방식으로 竹島[독도]를 편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 정부의 해석을 유지함은 바람직하는가? 다만 竹島[독도]를 일본령에 편입한 1905년 이후 일본 어민이 강치 사냥 등에서 활동하고 있었기에 竹島[독도]가 일본 영토임은 틀림없다.

기타 논점은,

- 1) 일본은 옛날부터 竹島[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 2) 한국이 옛날부터 竹島[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있는지.
- 3) 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는데 竹島[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는지.
- 4)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책정 과정에서 초기 단계로부터 미국은 竹島[독도]가 일본 관할하에 있었다는 의견이었는지.
- 5) 주일 미군의 竹島[독도] 폭격 훈련 구역 지정은 일본의 竹島[독도]에 대한 주권을 인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지.
- 6) 竹島[독도]의 귀속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이들 항목은 설명이 없는 채 슬라이드에서 짧은 시간만 표시되었다)

【코멘트】 야나기하라는 참가자의 수준을 고려했는지, "1905년 이후 일본 어민이 강치 사냥 등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竹島[독도]가 일본령임은 틀림없다」 라고 말했지만, 국제법 학자의 발언으로서는 의문이다. 1910년에는 한국병합에 따라 영유권 문제가 일단 소멸되기 때문에 불과 5년간의 어민의 활동에만 영유권의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은 어렵다. 야나기하라는 이를 알면서, 아마 메이지 정부가 무주지선점에 따라 竹島=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 행위는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강연의 주제에 따라 1905년 당시 竹島=독도가 무주지라고 단정할 수 있었는지, 한마디라도 말해야 했었다.

야나기하라는 1877년에 태정관이 「다케시마(울릉도)·마쓰시마(독도)를 일본의 관도 외로 정한다」 라고 공포한 일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불명이지만, 이 공포는 17세기 말 다케시마[독도] 도해가 금지되었는지 여부보다 훨씬 중요함은 틀림없다.

5. 【동영상】 趙吉夫·漆崎英之 외 「최신 연구에 따른 竹島=독도 문제」 제1장의 공개

2023년에 발행한 DVD 「최신 연구에 따른 竹島=독도 문제」 전 4장 중 제1장(제1절 및 2절)만을 竹島=독도문제연구넷이 유튜브 동영상에 공개했다. 그 URL, 소개문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제1절, 竹島=독도 문제란?

<https://www.youtube.com/watch?v=ePbP8C19FgY>

【철저한 해설】 논전 상대방 연구자를 '곡학아세'라고 부르거나, 혹은 논문이 '학문적 영위'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등, 일본에서 전대미문의 격렬한 논전이 벌어져 있는 竹島=독도 문제. 이 열띤 이슈를 알기 쉽게 4장으로 나누어 철저하게 소개. 일본에 영주하는 한국인·일본인의 3년에 걸친 격론을 양분으로 해 완속한 동영상. 그 자료적인 가치를 국회 도서관이나 시마네 현립 도서관 등이 인정하고 소장·등록. 당분간 전체를 요약한 입문편인 제1장만을 2회로 나누어 소개. 제1절 '竹島=독도 문제란?'에서는 竹島=독도 문제의 현 위치를 확인.

○제1장 제2절, 竹島=독도 영유권의 개략

<https://www.youtube.com/watch?v=m1aNf-4mN98>

【철저한 해설】 일본에서 치열한 비판이 오가는 竹島=독도의 영유권 문제. 제2회는 이 시리즈 전체의 에센스를 소개. 일본은 3회에 걸쳐 竹島=독도의 영유를 단념. 첫째는 겐로쿠(元祿) 다케시마(울릉도)일건에서 竹島=독도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된 에도 막부는 이 섬을 일본과 무관하다고 판단, 둘째는 그것을 덴포(天保) 다케시마(울릉도)일건 때 확인(자세한 내용은 제2장). 셋째는 태정관(메이지 정부)이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을 바탕으로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일본의 판도(영토) 외로 정한다'라고 공포(자세한 내용은 제3장). 따라서 竹島=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가 될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독립을 회복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竹島=독도의 소속을 결정할 수 없었다. 이 경우 국제법에서는 현상유지(승인) 원칙이 적용되며 竹島=독도는 한국령이 된다(상세한 내용은 제4장). 이들 전체 4장에 대한 요약은, 6분의 동영상 「최신의 연구에 의한 竹島=독도 문제」 (<https://www.youtube.com/watch?v=RYyxfirsLdc>)에 있음.

【코멘트】 DVD 전 4장을 시청하신 분들로부터 아래 소감이 있었음.

○DVD를 시청했습니다. 알기 쉽고 공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竹島=독도 문제에는 어두워 거의 모든 내용이 근시초문입니다.

○연구와 지견이 대단하고 응축된 DVD, 이제 제3장까지 시청했습니다. 저와 같은 문외한에게도 따라갈 수 있도록 고려하신 노력이 곳곳에 보이며, 덕분에 잘 공부했습니다.

○DVD를 다섯 번 시청했습니다. 매우 이해하기 쉽습니다. 독립 시 국경에 관한 '현상승인원칙'이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알기 쉽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3장 '근대' 편은 볼만한 내용입니다.

○ 과거의 독도뉴스(일본어)는 아래에서 볼 수 있음.

(半月城通信) www.kr-jp.net/half-moon/mokuji.html#net_news